

# 선 거 공 약

윤 진 영

1. 대전 시립극단과 지역 극단의 상생방안 확립
  - 1) 대전시립 극단 창단시 지역 극단 및 연극인들과의 상생방안 확립
  - 2) 협회원의 소득 향상 및 교육 훈련 기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확립
2.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 운영과 단결
  - 1) 정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공정한 업무처리
  - 2) 회원 의견 청취를 위한 자유토론 간담회 정례화
3. 대전지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 1) 국제 소극장 연극축제를 주제가 있는 공연축제 지향- 환경, 평화, 인권 등등
  - 2) 외국팀과 대전팀의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 및 공연 추진
  - 3) 리딩씨어터의 발전적인 방향모색
4. 교육연수 기회와 해외 연극 체험기회의 확대
  - 1) 외부 연출가 및 전문가를 초청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
  - 2) 연극이 발달한 국가 및 도시로의 연극 체험, 워크샵, 상호 초청공연 기회 확대
    - 영국 에딘버러,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프랑스 아비뇽,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 3) 소극장 연극축제 참여 해외 팀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방문 공연 추진
  - 4) 각국 대한민국 문화원, 유관기관 등 과의 협력으로 국제교류 기회 확대
  - 5) 주요 페스티벌 등에서 작품을 공모하는 내용을 저희에서 수집하여 안내 및 협조
5. 관객개발
  - 1) 대전 연극협회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 그램 등의 활성화
  - 2)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공연 안내 게시
  - 3) 협회와 극단간의 협업으로 공연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 홍보에 활용
  - 4) 대전지역 기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관극회원 개발
  - 5) 대전지역 대학 유관학과 학생들을 위한 특별 할인제도 시행
  - 6) 연간 회원제 운영

# 지회장에 출마하며

윤진영

안녕하십니까? 제17대 대전광역시 연극협회 지회장에 출마한 윤진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 협회원 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16대 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큰 문제 없이 해낼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 동안 대전지회는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연극제에서 2022년과 2025년도 대상을 수상하여 대전연극의 위상을 넓혔으며 특히 2025년도에는 대상 작품인 극단 손수의 “검은 얼룩”이 이집트 샘엘 세이크의 국제 연극제에 출품되어 세계 연극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고, 대전 희곡공모 사업과 연계한 지역 대표예술단체 공연도 선정되어 대전 연극인들의 작품참여 기회를 늘리고 해외 공연 및 합동공연의 기회를 확대하여 대전의 작품이 해외에서 공연되는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들이 협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임기를 마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다시 한번 연극협회 지회장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대전 시립극단과 관련된 일로서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대전 시립극단의 운영체계를 대전연극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운영 조직 및 방식들이 기존의 지역 극단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시립극단을 통하여 지역 연극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몇몇 연극인과 극단들이 걱정하고 있는 대로 연극발전에 방해가 되는 시립극단이 되지 않도록

- 1) 시외의 협조로 대전 연극인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구조 설립
- 2) 시립극단 출발로 각 극단에 공연인력이 모자라지 않는 방안 도출
- 3) 지역 극단과의 상생방안 모색
- 4) 개인에게는 소득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
- 5) 시립극단이 관객확대의 기회가 되도록 작품개발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한 사람들만이 시립극단의 혜택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연극인들이 시립극단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 운영과 단결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조그마한 오해들이 점점 커져 큰 불신의 산이 만들어 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런 오해와 불신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공정과 투명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 1) 업무처리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공정한 업무처리
- 2) 회원 의견 청취를 위한 자유토론 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하여 협회원들이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여 불신을 없애고 단결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대전연극협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 세 번째는 그동안 계속되었던 대전지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협회는 1년에 대전연극제, 청소년 연극제, 대전창작희곡공모, 리딩씨어터, 국제 소극장 연극축제 등의 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어진 행사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 1) 국제 소극장 연극축제는 주제가 있는 공연축제 지향- 환경, 평화, 인권 등등
- 2) 외국팀과 대전팀의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 및 공연 추진
- 3) 리딩씨어터의 발전적인 방향모색
- 4) 대전 창작희곡공모 예산 증액

등을 통하여 좀 더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번째는 교육연수 기회와 해외 연극 체험기회의 확대입니다.

현대는 모든 부분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연극도 마찬가지로 재교육과 체험기회를 통한 자기성찰 및 발전의 기회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우 훈련이나 기타 연관분야의 교육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전연극의 세계화를 위하여 대전 연극의 해외공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 1) 외부 연출가를 초청한 배우 워크샵 프로그램 진행
  - 2) 연극이 발달한 국가 및 도시로의 연극 체험, 워크샵,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등 운영
    - 영국 에딘버러,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프랑스 아비뇽,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 3) 소극장 연극축제 참여 해외 팀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방문 공연 추진
  - 4) 각국 대한민국 문화원,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
  - 5) 세계 주요 각국의 페스티벌이나 문화원 등에서 작품을 공모하는 내용을 저희에서 수집하여 각 극단에 정보를 알려주고 참여를 희망할 경우 협력
- 하여 대전연극인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세계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다섯 번째는 관객개발입니다. 사실 어찌보면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0석짜리 대극장에서 2일 4회 공연에 삼, 사천 명씩의 관객을 불러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연극이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경우도 드물뿐더러 한 달이나 두 달의 공연을 해도 천명의 관객을 넘기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타개해나갈 방법을 모색해보고 실행하여 관객과 함께 즐기는 대전연극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 1) 대전 연극협회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 그램 등의 활성화
- 2) 협회차원에서 매월 정기적인 공연 보도자료 언론사 배포
- 3)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공연 안내 게시
- 4) 협회와 극단간의 협업으로 공연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 홍보에 활용
- 5) 대전지역 기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관극회원 개발
- 6) 대전지역 대학 유관학과 학생들을 위한 특별할인 제도
- 7) 연간회원 제도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의 다양한 관객개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전연극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협회의 업무를 하는 동안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협회에 최대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혹시라도 다른 협회원이나 극단에 피해가 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협회원 전체를 생각하여 내린 결정이었고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대전연극도 젊은 피에 의하여 이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이고 유전적인 나이로만 젊음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유전적인 나이보다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협회원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스탭의 임무는 무대에 서는 출연자들이 더욱 빛나도록 돋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42년 동안 연극 스탭의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이 임무를 지회장이 되어 더욱 더 성실하게 수행하여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윤진영 올림